

인간의 “보통성 (Ordinariness)” 개념을 통한 이슬람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종합적 삼각 접근법 (Synthetic Triangular Approach)”¹ 과¹ 그리스도를 번역하기

김철수 선교사 (케냐 NEGST/ 미국 Fuller 신학교 교수)

들어가는 말: 이슬람 연구의 전통적인 접근의 한계성

전통적인 이슬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슬람의 이념이나 신조들, 그리고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무슬림 세계와의 예민한 관계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학문적 접근은 이슬람 현상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하나를 잊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것은 바로 보통 무슬림들에 의하여 경험되는 이슬람의 실재(reality)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이슬람 연구는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간에 학자들의 관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외부인들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슬람의 이상이나 학자들의 관점에 의하여 분석되어 기술된 이슬람 현상 등을 이슬람의 실체로 보게 된다. 그러나

¹ 본고는 원래 영문으로 기고된 “Considering ‘Ordinariness’ in Studying Muslim Cultures and Discipleship” (*Discipleship in the 21st Century Mission*, Timothy Park & Steve Eom, eds., Kyunggi, Korea: East-West Center for MRD, 2014, Pp. 177-192)을 기초로 하여 한글로 재구성하고 좀더 확장시킨 것임을 밝힌다.

² 예를 들어,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슬람학이 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이슬람의 역사적 발전, 특별히 무함마드의 생애와 신학적 관점,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변증학, 이슬람의 신학과 율법, 이슬람의 정치학과 부흥운동 등이 그것이다. (몇몇 유명한 학자들의 예. Bernard Lewis, 1993; Clinton Bennett, 1998, 2010; Montgomery Watt, 1961, 1985; Hugh Goddard, 2000; Ignaz Goldziher, 1981; Kemal Karpat, 2001; John Voll, 1994, Kenneth Cragg, 1985; John Esposito, 1988, 1999). 이들은 이슬람의 역사와 그 세계를 아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데, 이들의 주 관심사 혹은 논의의 초점은 역사적 사건들이나 신학적 혹은 정치적 이슈들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사회학적 연구도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평 무슬림들이 실제로 살고 경험하는 이슬람에 대한 기술이나 분석은 매우 드물다. 비무슬림인 서구 학자들 중에 Clifford Geertz (1971) 같은 문화인류학자들이나 기독교 선교학적 차원에서 Bill Musk(1989) 같은 이들의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종교이상주의적 입장에서 기술되었거나 학문화된 이슬람의 그림은 실제로 그 이슬람 아래에서 사는 무슬림들의 이슬람 경험은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슬람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여 이슬람과 연관된 역사 및 정치적 관계들이 기술되고 분석되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연구가 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전통적인 이슬람 연구 방법으로는 그 이슬람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 곧 “무슬림”들이 경험하는 이슬람의 실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이슬람을 연구할 때에, 일반 학계의 이슬람학 연구방법론이 갖는 이러한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무슬림”이라는 “사람 요소”를 연구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보통 무슬림들에 대한 연구가 세세히 이루어져서 이슬람 세계의 진면목 혹은 실재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슬림 연구에 있어서 사람의 “보통성 (Ordinariness)”의 중요성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간다는 말은 사람들의 문화의 표층구조 뿐만 아니라 심층구조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문화 내부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 좀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사람으로서 갖는 인간적 “보통성 (ordinariness)”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다. 즉, 무슬림들을 어떤 특정한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로 봄으로써 그들이 “살아낸 경험들 (lived experiences)”을 이해한다는 말이다.³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의 의미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미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인간의 “보통성”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성질(human nature)로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인간만의 성향(human propensity) 혹은 인간됨 (humanness)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³ Paula Sauko 의 책 (2003) 39-73 쪽 참조.

조건(condition)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사람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긴 시간 동안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 어떤 신념을 갖게 되기 이전의 마음의 독립적인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인간의 보통성이라 함은 인간의 원초적 심리(primal psychology)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통성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경향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이나 엄청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기에 보통인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간됨이다.⁴ 이러한 보통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질병이나 죽음이나 불행이나 재해와 같은 삶의 도전들 앞에서 놀라고 좌절할 수 있는 보통인일 뿐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삶의 문제에 답을 구할 필요를 느끼며 실제로 답을 찾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통 사람이란 진정한 인간이며, 보통성이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에게 고유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종교적이며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라도 이 보통성은 그들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외부적인 이념이나 강력한 지식의 영향력도 이 인간적 보통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만일 이 보통성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사람은 더이상 정상적이며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멈춘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통성”의 개념은 “이상적인 모델 (ideal 또는 desirable model)”과 반대되는 “이념 이전의 (pre-ideological)” 인간의 성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의 보통성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에 의하여 이념화되기 이전의, 수동적인 인간의 보편적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⁵

⁴ 신학에서는 인간의 죄성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글의 목적 상 인간학 차원에서만 풀어나가도록 한다.

⁵ 언어학 차원에서의 보통성 개념은 언어철학자인 Ludwig Wittgenstein 과 그의 제자들의 논의에서 발견된다. <http://www.iep.utm.edu/ord-lang/> 참조 바람. 20 세기 초의 보통언어철학(Ordinary Language Philosophy)은 기존에 있던 논리적 실증주의 (Logical Positivism) 등의 철학이 주장하는 철학적 언어의 특수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언어철학이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사람들의 보통 언어는 실재(reality)를 명확하게 묘사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일상의 보통 언어가 아닌 이상적인 언어, 즉 철학적 언어가 따로 있어서 이로써 철학적 개념들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보통언어철학자들은 보통 일상의 언어로도 철학적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통 언어로써 인간의 복잡한 생각들을 충분히 그려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Wittgenstein 등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이 지닌 보통성은 어떤 체계화된 이념이나 철학보다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보통성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진정 가장 심오한 인간의 자리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인간의 보통 언어로써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인다.

종종 사람들은 인간의 보통성을 이념화되었거나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고에 비하여 열등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성은 지식의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적 성질이기에 때문에,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나 학자라 하여도 보통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의 지도자됨이나 지성은 그들의 보통성이 종교적 신념이나 학식으로 무장된 것이다. 보통성이 없이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느끼는 일도 있을 수 없으므로, 보통성은 인간의 모든 씨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즉, 그들의 신념이나 학식 저변에는 인간으로서의 보통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내면의 심리 현상을 보게 된다. 그것은 신념이나 사상이 증가할수록 내면에서 경험되는 갈등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면의 보통성과 보통성을 덧입힌 외부적 사상이나 신념과의 충돌의 결과로 보인다. 즉, 인간의 보통성은 이념화된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과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보통성이 어떤 이념에 의하여 설득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념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벗어나 소위 "비정통"이라 불릴 수 있는 쪽으로 가기도 한다. 종교학에서 흔히 공식적 종교(official religion)와 대중(popular 혹은 민속 folk) 종교로 나누어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들을 묘사하는데, 대중/민속 종교 현상은 인간의 보통성이 강하게 드러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구조를 무슬림들 사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보통성을 염두에 둔 연구 방법론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무슬림들의 인간적 보통성은 어떻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본인의 세계관에서 통합하였을까? 그래서 이슬람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의 도전이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그들이 이해하는 이슬람에서 얻고 있을까?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주는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런 이슈들을 염두에 두고 공식 이슬람의 시스템 안에서 매일의 일상을 사는 무슬림들의 보통성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가를 알고자 하여 연구방법론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무슬림들의 인간적 보통성이 어떻게 이슬람의 이념을 만나고 있는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이슬람 연구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이슬람 현상의 표층구조만이 아니라 심층구조의 내용, 즉 무슬림들의 내면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필자는 믿는다. 특별히

무슬림 사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또 이슬람의 배경에서 돌아온 무슬림 회심자들을 제자도로 돕고자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인간의 보통성을 염두에 둔 무슬림 연구는 인간학(anthropology)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신념들이 사상 차원에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된다. 종종 무슬림 회심자들은 교리의 문제보다도 많은 경우에 인간적 보통성 차원에서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이전의 이슬람 종교와 문화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⁶ 이제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보통성을 염두에 둔 무슬림 연구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법론은 어떤 비법을 가진 특출한 연구법은 아니다. 다만 이슬람 연구에 있어서 “무슬림”이라는 변수를 꼭 염두에 두고 문화권마다 다른, “사람”의 보통성이 어떻게 보편적인 이슬람의 이상과 만나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선교 사역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상황화 모델을 적용하기 보다는, 선교사들이 직접 탐구하여 얻어진 데이터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복음의 소통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자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성을 염두에 둔 연구 방법론: STA (Synthetic Triangular Approach)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슬람 연구의 고전적인 접근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선교 목표가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회심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 영역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무슬림들이 믿는 공식 이슬람의 내용과 특징들이다. 이슬람의 보편적인 공식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물론, 섬기고자 하는 이들의 사회적 삶과 관습의 기반(基幹)이 되는 그들의 율법(shariah)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연구자가 그 지역의 무슬림들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인 꾸란과

⁶ John Span의 논문 “Reversion: Why Do ‘Christian Converts’ from Islam Return to Their Old Religion? What Can Be Done to Prevent it?” (2020) 참조. 영적 성장 역시 어떤 종교성 차원에서의 열심의 증가보다도 일상의 보통성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디스의 내용 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 학파의 해석도 그 지역의 이맘들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보통 무슬림들이 경험하는 이슬람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슬림 사회의 지도자어나 학자들이 정리한 이슬람의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 이슬람 종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이슬람의 보편적인 교의나 관습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슬람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는 데이터는 무슬림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이슬람이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문화권마다 다르게 갖고 있으며 경험하는 그들의 종교성 내지는 영성을 포함한다.

종종 비무슬림 연구자들은 이슬람을 본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는 이슬람을 본인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뒤 무슬림들에게 바로 변증적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많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슬람의 교리를 보아야 할 당연한 필요 이외에도, 이슬람을 사는 내부자들이 경험하는 이슬람에 대한 연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에 비로소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 특별히 인지인류학적인(cognitive anthropological) 통찰을 많이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생각을 종교적이나 교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를 경험하며 일상에서 사는지, 또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며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슬람의 시스템에서 삶의 문제의 해결을 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보통성”은 어떻게 이슬람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과 그 기술(記述)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세번째로, 우리는 선교적인 질문을 함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이슬람의 가르침과 그들의 현실 경험과의 관계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이라는 이상과 무슬림들의 보통성과의 역동적인 관계나 혹은 현실적인 괴리(乖離)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영역이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보는 이슬람 경험에 대한 탐구와 이에 대한 기술(記述)이라면, 세번째 영역은 이 두번째 데이터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좀더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경험되는 무슬림들의 삶의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실재(realities)들이 갖는 의미들을 독자들을 위하여 학문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두번째 연구 영역이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내부자의 "emic" 관점을 알기 위한 것이라면, 세번째 연구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틀을 사용하여 무슬림 내부자의 관점들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슬람의 이상에 비추어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을 토대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들의 문화적 혹은 내면의 의미들을 정리하는 소위 "etic" 분석이 된다.

이슬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최소한 세 연구 영역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는 현장 연구를 필자는 다른 글에서 "종합적 삼각 접근 (Synthetic Triangular Approach, 이하 STA)"이라 명명하였다.⁷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영역의 연결 원리는, 하나의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변이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일반화(reductionism)되어 구체적인 이슬람의 실재인 무슬림들의 삶을 깊이 탐구하지 못한 전통적인 이슬람 연구를 보강하기 위한 선교학적인 노력이다. 마치 숲은 보면서 그 안에서 숲을 만드는 개개의 나무는 잘 모르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교학적 이슬람 연구는 이 둘을 모두 진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STA의 예를 들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사하라 이남의 이슬람 현상의 구체적인 교차종교적 연구들(inter-religious studies)은 필자가 섬기는 박사 과정에서 나온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⁸)

⁷ 위에 언급한 필자의 소고 (2014) 참조. Synthetic이란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삼각형의 세 변이 연결되어야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세 연구 영역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무슬림들의 삶의 진면목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⁸ 예를 들어,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의 이슬람 연구 논문들로 Lawrence Oseje의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Luo Traditional View on the Contemporary Luo-Muslim Conceptualization of Death in Kendu Bay, Kenya"와 Samuel Lumwe의 "A Cosmological Study on the Concept of Purification in Relation to Blood Impurities and its Social-religious Implications among the Digo People in Kwale County," 그리고 Judy Wang'ombe의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ognitive Foundation for Participation in *Ayyaana* Cult among Borana Muslims in Marsabit County, Kenya" 등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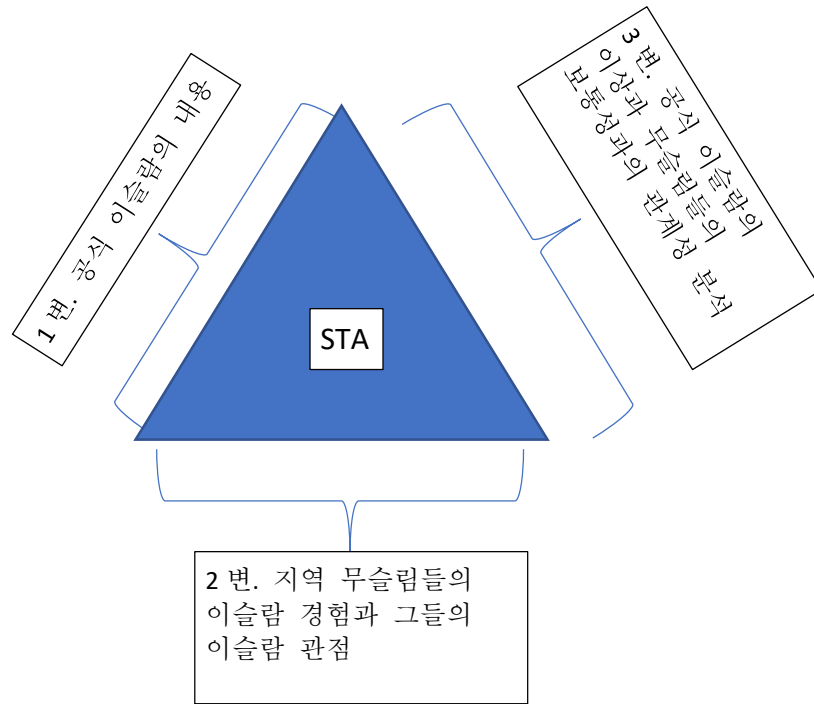


그림 1. STA(Synthetic Triangular Approach)의 세 연구 영역

“보통성” 개념과 STA 접근을 통한 자선교신학의 시도

복음 전도 뿐만 아니라 회심자들을 제자 삼는 사역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것이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이다. 선교적 열의 때문에 혹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복음 사역자들이 이슬람을 오직 교리적인 종교로만 보고 접근함으로써 무슬림들의 정체성이 배어 있는 그들의 문화를 공격하는 우를 많이 범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 결과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쾌감을 넘어서서 적대감을 갖는 데까지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복음을 교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고 보인다. 복음을 우리는 교리로 정리해서 잘 전하기도 해야겠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제자들의 생각을 결국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의 인간에의 접근은 사랑과 인내이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말하는 그 인품으로 (갈 5:22-23)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적 보통성의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알았어도 배신하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들의 의지를 돌려놓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들의 보통성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만나 주셨고,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 보통성이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연약한 마음의 자리였다. 제자들의 신앙과 사상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지 그들이 열심히 어떤 종교적 가르침들을 습득하고 외어서 얻어진 결과는 아니었다. 그들이 보통성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덧입혀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통성이 어떤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로 대치된 것은 아니었다. 그 보통성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의 주인인 그 분을 계속 체험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경험할 수 있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처럼 보통성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다. 선교는 이렇게 사람들의 보통성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무슬림들이 아무리 저들의 종교적 이념과 반기독교적 교의와 정서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STA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모두 필자가 위에서 강조한 보통성을 가진 보통 사람들일 뿐이다. 전통적으로 서구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 때문에, 또 서구의 전통인 계몽주의적인 문화적 관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이슬람의 종교인들로만 부각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컸다. 무슬림들의 인간적 보통성보다도 그들의 종교적 옷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들의 종교의 오류와 또 기독교 세계를 향한 오만한 태도들 때문에 서구인들은 무슬림이라는 사람보다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더욱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무슬림들을 동료 인간 혹은 동료 죄인으로 보기보다도 이렇게 종교의 렌즈를 통해서 볼 경우 보통성은 종교적 이념이라는 갑옷에 가려져 알아보기 힘들어져 버리는 것이다.

“자신학” 혹은 “자선교신학”을 논의하는데 필자의 무슬림 연구 방법론인 STA 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STA 는 서구의 여러 연구 방법론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 이 방법론은 다만 기존해 있는 서구적 관점에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영역들을 보강하고, 또 혹시라도 온당해 보이지 않은 것들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 뿐이다. 서구의 선각자들이 앞에서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의 총체성과 연속선 상에서 놓고 볼 때에, “자선교학”은 그 연계성 위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역사의 단편일 뿐이다. 사실 지난 수백년간 세계 교회를 주도하고 지배해 왔던 서구의 신학과 선교학들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 자신학과 자선교학들이었다.

한때에 그것들이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지긴 했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식민주의가 약화되고 또 사상적 교조주의의 힘이 분산되어감에 따라 그 한계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보강할 현장에 필요한 성경적 다른 관점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자신학이라고 하는 관점들은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유의 관점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선상에서의 자신학과 자선교신학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TA 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아 출신인 어느 선교사 교수가 아프리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그 현상을 연구하다가 얻게 된 보완물로서, 기존해 있던 서구 중심의 고전적 이슬람 연구에서는 잘 찾아지지 않는, 사람 중심의 이슬람 연구를 강조하는 아시아적이면서도 성경에 기반 연구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STA 의 자선교신학적 측면을 조금 더 들여다 보고 본 고를 마치고자 한다. STA 의 선교학적 측면을 논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서구 선교가 그동안 시도해 왔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선교학적 입장을 비교적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줄거에서 나름대로 지적하였듯이⁹ 서구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비서구 사회에서 선교를 수행할 때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우월주의적 시각에서 타문화나 타종교를 바라볼 때에는 선교를 수행하는 이들이 그 문화나 종교 아래 있는 이들을 교육과 계몽과 책망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서구 선교의 역사 뿐만 아니라 한국/한인 교회의 지난 30~40 년의 선교를 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접근들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복음적 시각에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주로 교리적인 각도에서만 현지의 “종교”를 보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구원의 교리가 오직 종교적으로만 국한되어 버리는 듯한 흐름으로 많이 흘러갔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주로 선교사들의 문화적 렌즈와 그 문화의 형식들을 중심으로 수행됨으로써, 수용자들은 복음에 대하여 문화적 정서 차원에서 매우 이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다. 서구적인 복음 이해와 구원(혹은 회심)의 경험이 다른 문화권에서 반드시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본인들의 영적 경험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죄함으로써, 현지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선교사들의 신앙 표현을 요구하기도

⁹ 선교학총론, GMS 선교전략연구개발원, 2020.

하였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들이 오히려 현지의 문화 내부자들로 하여금 이중 충성(dual allegiance)의 혼합주의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STA 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반성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서구의 전통적인 선교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20 세기 중반부터 Fuller 를 비롯하여 여러 복음주의 선교학계에서는 수용자 중심(receptor orientation)의 선교적 접근을 선교학 담론의 중심으로 이끌어 내긴 하였다. 이러한 서구 선교계의 자성적이며 혁신적인 선교적 접근이 반성적인 선교학 원리들을 끌어냈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통성" 차원의 접근 개념은 부재하였다고 보인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복합성을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하는 STA 방법론은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선교적 원리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 인간의 보통성이라는 천연적인 자리(natural state)에서 그들과 사람 대 사람으로 진솔하게 만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본다.

필자가 STA 적 접근을 구상한 데에는 여러 이유와 동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 중요한 이유 하나는 소위 "피선교지" 혹은 "피선교지인"이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성 때문이었다. 필자 역시 아프리카 인들처럼 선교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온 선교사의 지도와 양육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20 대 초반에 경험했던 서구 선교사들과의 만남과 또 후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필자의 지도와 양육을 받은 이들과의 만남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부분들도 많았다. 특별히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받아 본 이"의 심정 부분이다. 주는 것이 가깝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님을 필자는 여러 모로 경험할 수 있었다. 주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속에 숨겨진 허약한 자아의 자기실현에 불과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선한 의도로 베푸는 해도 받는 이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받는 이들에 대한 성육신적인 고려함과 배려함 없이 자기 만족을 자신도 모르게 추구하여 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답이 될 것이라는 메시아니즘의 신념에 근거하여 주고자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받는 이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조사나 평가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로써 답이 주어졌다고 스스로 믿어버림으로써 만족할 수도 있다. 만일 선교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주는 것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이러한 섬김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이들이 확신하는 복음이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도 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를 섬김이라는 차원에서 정의해 볼 때,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교는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자께서 당신을 아낌 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에서 그 절정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 나누기에서 선교를 배운다. 그런데 나눔은 공통 분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과 같이 인간이 되어 주셨다. 바로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하여 신이신 성자께서는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를 위하여 성자께서는 우리들 속으로 들어 오셨고, 바로 그 "우리들 속"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전분투하며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의 보통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필자는 STA 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와 전혀 다른 이들의 보통성으로 좀더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선교 역사 속에서 이슬람 세계에서의 서구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지 사람들의 믿는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상을 바꾸어 주려는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이슬람 문화 전체를 종교적 이념의 화신 정도로 생각함으로써, 마치 무슬림들 모두가 이상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STA 방법론은 그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보통성으로 다가가도록 도와 준다. 그들에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무언가 영원한 진리에 갈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순들과 아픔들 때문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목자 잃은 양들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보통성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STA 를 통하여 자선교신학을 말하고자 하는 영역은 선교 실천 방법론이다. 그동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선교, 특히 타문화권 내지 타종교권 선교를 말할 때에 주로 "상황화 (contextualization)"라는 개념이 그 논의에 중심에 있어 왔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문화 외부인이 문화 내부인들의 문화적 형식과 의미들을 잘 활용하여 복음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선교

방법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화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접근의 단점은 역시 “주는 이” 중심의 접근이라는 것이다. 주는 이가 성공한 케이스를 모델화해서 또 다른 이에게 하나의 방법론으로 전수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서구 선교학자들의 글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선교라는 복음 전달의 행위를 “주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선교가 삶의 밖에서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보통성 바로 거기서 예수가 나누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선교와 관련하여 담론할 때마다 “예수를 번역함 (translating Jesus)”으로 표현하곤 했다.

말이나 글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언어의 법칙을 찾아내어야 하듯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이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의 법칙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문화적 법칙으로 번역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황화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을 요한다. 선교에서 상황화가 복음의 교리적 전달을 위한 일종의 종교적 대화(religious dialogue)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번역은 삶의 대화(life dialogue)를 통한 “예수의 그림 그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의 성육신 복음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보여질 수 있는 “삶의 대화”적 접근인데,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보통성에 맞춘다는 점에서 상황화의 담론보다는 폭이 넓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람들의 이상과 현실 모두를 그들의 보통성의 자리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STA 는 문화 내부자들이 추구하는 이상(1 번)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2 번)을 다 알기를 요구하며, 또 이 둘의 일치나 모순이나 괴리 등(3 번)의 함수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STA 의 세변을 모두 다 망라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의 하나님 지식을 구체적으로 삶으로써 나눌 수 있을지를 좀더 알게 되고, 이것을 저들의 문화적 법칙을 따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기존의 극단적인 상황화 작업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면의 한계 상 자세한 답은 생략하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신앙의 기저를 형성했다면, 우리는 대범하게 사람들의 보통성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우려는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열정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곤혹스런 담론을 진행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선교 역사는 성공보다도 다양한 실패의 경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시사해 준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삶의 나눔과 그 삶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cf. 벧전 3:15). 필자가 나누고 싶은 자선교(신)학의 그림은 아직도 많은 면에서 미완성품이다. 다만 이전의 선교적 접근을 무비평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나누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여 필자 자신의 타문화/타종교권 현장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본 줄고를 집필해 본 것이다. 오늘처럼 코로나-19 가 창궐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고심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성경에 근거한 본질적인 내용들이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상황이나 위기와 상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꼭 실천되고 성숙되어야 하는 숙제들일 것이다. 그 가능한 현실적 실천과 씨름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다.(끝)

참고 도서

- Bennett, Clinton. *In Search of Muhammad*. London: Cassell, 1998.
- _____. *Studying Islam: The critical Issues*. London: Continuum, 2010.
- Cragg, Kenneth. *The Call of the Minaret*. Maryknoll, NY: Orbis Books, 1985.
- Esposito, John. *Islam: The Straight Path*.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The Islamic Threat: Myth or Reality?* 3rd ed.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Geertz, Clifford. *Islam Observed: Religious Development in Morocco and Indonesia*.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Goldziher, Ignaz. *Introduction to Islamic Theology and Law*. Andras and Ruth Hamori, tra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Gooddard, Hugh. *A History of Christian-Muslim Relations*. Chicago, IL: New Amsterdam Book, 2000.
- Karpat, Kemal. *The Politicization of Islam: Reconstructing Identity, State, Faith, and Community in the Late Ottoman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Kim, Caleb C. *Islam among the Swahili in East Africa*. Nairobi, Kenya: Acton, 2004.
- Kim, Caleb and John and Anna Travis. "Relevant Responses to Folk Muslims," 18th Chapter of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8.
- Lewis, Bernard. *Islam in History: Ideas, People, and Events in the Middle East*. Chicago, IL: Open Court, 1993.
- Musk, Bill. *The Unseen Face of Islam*. E. Sussex, UK: MARC, 1989.
- Saukko, Paula. *Doing Research in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New methodological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3.
- Span, John. "Reversion: Why Do 'Christian Converts' from Islam Return to Their Old Religion? What Can Be Done to Prevent it?" in *Global Missiology* (www.globalmission.org), July 2020.
- Voll, John O. *Islam: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Modern World*. 2nd e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4.
- Watt, W. Montgomery. *Muhammad: Prophet and Statesm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_____. *Islamic Philosophy and Theology*.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5.

- 김철수. 선교학 총론. GMS 선교전략연구개발원, 2020.

<토론질문>

1. 왜 서구의 신학이나 선교학 자체가 그들의 "자신학" 혹은 "자선교학"일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perspective/관점을 자신들의 보통성에 대한 자신들의 답으로 보기보다는 보편적/universal 한 것으로 보려 할까?
2. 보통성은 biological 한 condition 이면서도 (그러므로 보편적 실재임) 이 역시 contextually characterized 하다고/특성이 있다고 필자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한 서구의 그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성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다르며 어디에서 공통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